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79호>
2001년 3월 6일(화)

창간 1955년 4월 11일 · 주간 발행인 조규철 · 법정인원 주간 변해룡 · 편집장 박수용 · 인쇄인 홍옥수 · 신문사 961-4151 · 962-7126 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 4466 FAX/ 961-4183 · 윤인 031 330-4112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22

다시 보는 한 해

2002학년도 입학전형 변경, 정년퇴임 교직원, 인사이동, 외대 문화·학술상 시상식 등 방학 중에 일어난 다양한 대학소식과 이번 한 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진으로

'올린다. 얼마 올릴까?' 이런 식의 논의는 이제 그만. 올해 등조위를 평가해 봅니다.

한국소식

4년 전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일세대' 집필로 이적성 논란에 휘말려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았던 이장희(국제법) 교수가 드디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달에 한번 골로 법정에 나서야 했던 학자로서의 그의 고충에 대해 특별 인터뷰를 해 보았다.

사회나

순수 졸업생 취업률이 30%, 취업체감지수를 찾아 도서관으로 기보았습니다.

생활문화

대학문화는 대학론가 아니라 대학에 있다. 그럼, 외대문화는? 바로 여기에! 양 배움터 문화 공연장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공연들을 소개합니다.

한국문

스무살 대학생의 첫 시작! 양배움터의 새터는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평가해봐요.

등록금 7%인상

양 총학, 지속적 논의 요구

등록금이 7%(신입생 9%) 인상됐다.

학교측은 지난달 9일(금) 대학평의원회에서 △물가인상률 증가 △자연증감 분 증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7%인상하는 조정안을 관철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은 "등록금이 모자라는 학생에게는 최대한도로 장학금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이후의 등록금 논의방안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측은 "물가인상률은 거듭해 주장하지만 700대에 달하는 컴퓨터 관련예산에 의혹제기 이후 다음 회의에는 항목이 삭제돼 올라온 것을 봤다"며 합리적 예산편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남아 있음을 밝혔다.

이번 등록금 논의는 지난 1월 8일(금)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있는 등록금조정위원회(등조위)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겨울에만 잠시 얼리는 회의의 한계가 있다. 상시적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지난달 16일(금) 우리학교 양 배움터 100여명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재정 6%확충, 대학구조조정 철회를 위한 전국대학생공동학지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집회에 앞서 등록금 인상 저지, 망국적 교육정책 철폐에 공동 발의한 전국 250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대표, 6개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교육부를 방문했다. 대표 중 한 명인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승주(사회·정외 97)군은 "개혁적 성향의 한 부총리에게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이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게 내려진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파국으로 치닫게한 원인은 분명 학교측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재논의는 가능하다는 뜻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2일(금) 용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중앙운영위원들은 신입생 입학식 행사가 끝난 후 총장을 가로막고서 등록금과 학내사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양경수(동유럽·플란드어 95)군은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등록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호응도 좋아 가능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납부연기, 민주납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대학부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2001년도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가 지난 달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무주리조트에서,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속초에서 서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주최로 각각 진행됐다. 유난히도 하얀던 겨울을 보내고 녹색으로 만발한 봄을 맞이하려는 2월 끄트머. 새내기들의 시원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학기 내내 활기찬 교정을 기대해본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교협회장 송경숙(아랍어) 교수 당선

송경숙 교수(아랍어)가 지난달 21일(수)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교수협의회 회의에서 새로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징희 교수(법학)와 송교수가 입후보해 40여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날 송교수는 "우리학교에 교수사회는 왜곡이 심하다며 교수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열린교협, 화합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작가인 괴테의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을 인용해 "여성인 나에게 투표한 것은 보듬고, 끌어안는 갈등을 지양하는 교수들의 뜻일 것이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상열 교수(스칸디나비아어)와 장재덕 교수(수학 전공)가 각각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총장연설, 부처별 업무보고 및 회의 순으로 진행된 교수간담회에서 학사구조정 개편안, 2001년 입시계획 등 부처별 업무 진행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단과대학별 소회의 △관광 일정도 진행했다.

대학부

양 배움터 새터, 새내기를 주인으로

양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가 각각 진행되었다.

서울배움터는 지난 달 21(수)일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동안 무주리조트에서 '지르지마,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기조로 열렸다. 각 첫째날과 둘째날 오전까지는 각 단대별 행사를 갖고 22일(목)인 둘째날 오후에는 중앙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이에 총학생회 문화국장 김성휘(서양·노어 97)군은 "중앙공연이 야외에서 진행되어 산만하고 추웠지만 함께 하는 무대, 새내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지랑스런 왕산의 새내기, 하나된 세상의 주인이여라'는 기조아래 지난달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3박 4일동안 속초 대명콘도와 일성콘도에서 각각 나누어 진행했다. 첫날인 22일(목)에 속초 체육관에서 열린 중앙공연과 문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각각 단대별로 진행했다. 새내기 준비위원단으로 활동한 이지영(동유럽·플란드어 01)양은 "새터 공간에서 많은 선배, 동기들과 보내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새터 중앙공연 기획단장인 고연정(경상·무역 96)양은 "눈이 60cm가 내리는 등의 폭설로 객관적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자봉단과 모든 학생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새터는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연장됐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3·1정신 계승 및 반외세 민족자주대회 열려

지난 3월 1일(목)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주최의 '3·1정신 계승 및 반외세 민족자주대회'가 열렸다.

3·1정신을 되새기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1천여명이 함께했다.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율동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의 만세삼창, 자통협 홍근수 상임의장의 정치연설과 청년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9기 한총련 임시의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용헌군이 미국과 일본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한 후 성조기와 일장기를 찢는 실천투쟁으로 집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행사에 앞서 서울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개혁파탄 시국대회를 마치고 오던 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본교생 시위중 연행돼

지난 1일(목) 침략행위를 간과하는 망언과 교과서 왜곡을 방조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임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경기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20여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열린 김대중정권규탄집회에 참여 후 임시 일본 대사관앞에서 집결해 깃발을 꺼내고 시위를 시작하려는 순간 경찰에 의해 연행돼 성북서, 동대문서로 나뉘어 이송됐다. 연행된 학생 중에는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최고은, 허환희(동유럽·노어 97)양, 추형서(경상·무역 97)군, 한정은(서유럽·서반아어 99)양, 이동수(인문·사학 00)군 이상 5명도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송된 성북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중 가방을 빼앗기고 폭언과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부

본관건립 계약체결, 오는 30일(금) 기공식 진행하기로

총장은 지난달 2일(금) 교수회관 귀빈실에서 삼환기업 손정무 사장과 본관건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조인식은 건설본부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본관을 173억 1620만원에 2004년 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한편, 학교와 학생간에 의견차를 보여왔던 기공식이 지난달 13일(화) 열린 5차 본관건립위원회에서 '합의와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의견에 입을 모으고, 제 2건학 선포일인 오는 30일(금) 진행된다.

대학부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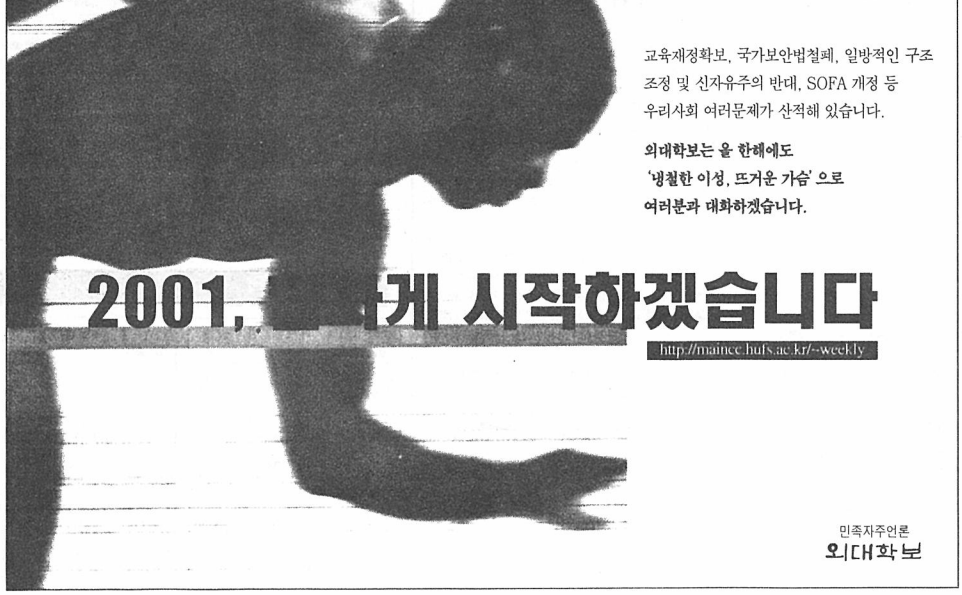
1. 본보는 매주 12면 발행에서 매주 8면(월 1회 12면)발행으로 전환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제기획은 월 1회 발행 국제면은 폐지합니다.

외대학보

사랑

편집장
임
박수용 (서양·독일어 99)
면
정효정 (인문·철학 98)

외대학보



빈의

김 '대우' 중

▲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빵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더 큰 빵을 나누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일하자"

노동조건개선이나 기본적인 노동현장에서의 어떤 집단적 움직임 자체를 혹독하게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노동자들이 그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군사독재 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조금만 더 참자"는 이데올로기였다. 지금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피땀으로 보다 건실한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빗살좋은' 이 말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김대중대통령의 입으로 계속되었다.

▲ 한국의 경제는 분명 양적인 성장을 하긴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경제의 부풀어진 빵이 '속빈 강정'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경제의 부패하고 경쟁력 없는 부위를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 가치없이 빵을 조각내고 있다. 그렇게 빵이 조각나고 잘려나갈 때마다 노동자의 삶이 잘려나가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민중의 삶이 이렇게 파탄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부담이 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해 그 빵을 살리려 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 그 썩어 들어간 부위를 잘라내려 하는가

▲ 대우자동차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과잉부실투자에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세계경영'의 이름으로 과도한 부채경영을 일삼은 김우중과 대우차 경영진, 부실대출 금융기관, 그리고 대우차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부실대출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부관료들이 위기의 진정한 주범이다. 또한 지난 99년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이후 김대중정권이 사실상 채권단의 이름을 통해 쏟아 부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단지 '해외매각'을 위해 부채규모를 줄이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기 위한 수순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적기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중단함으로서 워크아웃기간 동안 도리어 막대한 추가부실을 키워 실질적인 기업회생에도 실패한 것이다.

▲ 빵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만 한다면 또 다시 그 빵은 썩을 수 밖에 없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빵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을 제대로 찾아 제거해야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온갖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우중과 아직도 '세계화' 운운하며 대우자동차를 초국적 자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김대중은 이름만 바슷한 게 아닌 가 보다.

윤홍은 문화부장 happyend21@hanmail.net

공 통

2002년 대입 전형안 발표
1학기 수시모집 10% 선발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안이 발표됐다. 입학과는 특차가 폐지되고, 수십모집이 1학기에도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학교는 1학기 수시모집으로 340명(정원의 10%), 2학기 수시모집으로 867명(25%), 나머지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1학기 수시모집 전형유형은 학교장 추천특별전형, 국제전문가 특별전형, 수능우수자 특별전형, 자기 추천자 특별전형이다. 수능 우수자 특별전형은 2001학년도에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서울배움터 수능 5%이내, 용인배움터 인문계 12%이내, 자연계 15%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2258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배움터 일부학과의 정원을 '나'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분할 모집으로 선발하는 학과는 영어학부(30명), 중국어과(15명),일본어과(15명), 법학과(30명), 상경계열(40명)이다. 이와 관련 입학과 정일환 과장은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분할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 수시모집에서 toeic, toefl, flex(영어)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은 지원 가능 점수를 약 40점 정도 상향조정했다.

외대 문학상 · 학술상 시상식
5개 부문 9명 수상 영예 안아

제 37회 외대 문학상과 제 17회 외대 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2월 17일(토)에 외대학보 주간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시 당선 '강물은 흐으르지' 김혜영(동양 · 인도어 98) ▲소설 당선 'i love' 송주형(사회 · 신문방송 98) ▲소설 가작 '고우 투 원더랜드' 이지나(서양 · 독일어 96) ▲평론 당선 '서정이 이끄는 반추의 미학' 김정영(지연대학원 화학과 1학기) ▲평론 가작 '웃음의 별' 우정혁(인문 · 철학 96) ▲인문과학 당선 '고등학교 불가철학 교육 모형연구' 손장혁(인문 · 철학 93) ▲사회과학 당선 '다단계브랜드 확장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범주지각에 관한 연구' 허종호(세계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사회과학 가작 '헤게모니 이론과 미디어' 서상훈(사회 · 신문방송 95) ▲사회과학 가작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에 관한 연구' 김의연(정책과학대학원 정치외교학과 4학기)이다. 이날 시상식은 상장 및 상금 수여와 간다한 다과회로 진행되었다.

외언인 시상식 열려

총동문회 산하 우리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인 외대언론인회(회장 최동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달 16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01 외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김근 연합뉴스 사장, 송도균 SBS사장, 이경희 코리아 헤럴드 주필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외대언론인회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언론계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동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 올해로 3회째 시상식을 맞았다.

공로표창 수상 시상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공로표창에는 서정천 서울배움터 시청각교육원 과장, 용인배움터 김창호 모현학사 과장, 서울배움터 이재명 입학주임이 국민교육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배움터 학생과 육진호씨가 학생지도 공로표창을, 기획조정처 안경호씨가 공로표창을 받았다.

언론협의회장 당선
우혜나(동양 · 마인어 98)

우혜나(동양 · 마인어 98)양이 지난달 6, 7일(수) 진행된 언론협의회(언협)의 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71%투표율 가운데 92.6%의 찬성률을 보여 당선됐다.

당선자 우양은 '통일의 탄/탄/대/로를 뛰어가는 하나된 언론일꾼의 약동'을 기치로 △평양외대 방북취재 △간담회, 기자회견 등 대내외 사업 강화 △새내기사업 강화 △언협 행사 개최의 기수별 모임편성 △소식지 혁신 △언협 홈페이지 개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우혜나 당선자는 "하나 5개 언론사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인도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 벌려

최종찬 인도어과 학과장은(서울) 지난 1월 30일(화) 부터 2월 9일(금)까지 인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는 지난 1월 26일(금) 인도의 구라자트 주를 강타한 지진으로 2만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인도의 재앙을 함께 나누자는 측면에서 기획, 여기서 모아진 총 330여만원이 지난 2일 12일(월) 주한 인도 대사관에 전달됐다. 최 교수는 "학내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주어 고맙다. 인도 돈으로 10만루피정도 되는 이 돈은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매경플렉스 외국어 활용 능력 검정시험 3.11(일)

서 울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우리학교 외국어연수원 한국학 과정에 수강하는 교환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8일(수) 교수회관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junko irie를 비롯해 12명의 교환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생활 설명, 태권도 동아리 소개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교환학생단은 교류가 없던 호주국립대학교, 동경대학교 학생 4명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연구협력과 국제교류주임 윤경옥씨는 "교환학생에게 숙소배정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숙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환학생들이 진정한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생식당 새단장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이 구조변경공사를 끝마치고 새롭게 태어났다.

현재 학생식당은 공사전 교직원 식당이 있던 흡산홀(hufsan hall)과 기존의 학생식당이던 미네르바홀(minerva hall)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식코너가 흡산홀로 이전돼 라면, 토스트 등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며, 기존의 분식코너에는 매점이 들어섰다. 또한, 1, 2매식구는 미네르바홀에, 3매식구는 흡산홀에 위치해 점심메뉴가 늘었다. 한편 퇴식구는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매점위치로 옮겨졌다.

예비군대원신청안내

2001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 예비군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후(복학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대상자는 △복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수전공 △학부에서 대학원 지원자이며, 전출신고 대상자는 △휴학 △자퇴 △제적 △졸업자(일반 직장대 편성대상자)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회관 1층 학생처 앞 비상계획관실로 문의.

전화번호 961-4145~6

200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2월 27일(수)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용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했으나 전체 대학생 3명 중 1명 정도로 취업이 돼 졸업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위는 학군단의 이색 졸업생 환송 장면.

사진부

우울한 졸업(?)

인 사

정년퇴임 교수

△이상준 교수 (영어과)

△윤석주 교수 (무역학과)

△이희상 교수 (교양체육)

△남용택 교수 (무역학과)

지난 달 26일(수) 직원정년퇴임식 열려

직원정년퇴임식이 지난 28일(수) 교수회관 식당에서 열렸다. 정년퇴임자, 명예퇴임자들과 총장, 총무처장, 기조처장 등 교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 인사말, 송사, 답사,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퇴임직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유원유 대학원 사무1과 △신충식 용인배움터 도서관열람과 △이정의 용인배움터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과 △권영학 서울배움터 총무처 관리과 △황덕용 서울배움터 총무처 △노태원 서울배움터총무처 △강준만 서울배움터 총무처 △최시권서울배움터 총무처 △최귀진 서울배움터 총무처 △우규혁 서울배움터 총무처 △민삼람 용인배움터 총무처 △최원재 용인배움터 총무처 △이규혁 용인배움터 총무처 △이은우 용인배움터 전산실습실 △박점열 서울배움터 총무처 관리과 △윤경식 용인배움터 총무처 관리과

교직원 인사

· 인사발령

△서울배움터 부총장 김명수 교수(행정학과)

△용인배움터 학생처장 박찬구 교수(철학전공)

△경영정보대학원장 신현길 교수(경영학과)

△정책과학대학원장 김우룡 교수(신문방송학과)

△인문대학장 최갑순 교수(사학과)

△자연과학대학장 최인준 교수(전자물리학과)

△서울배움터 도서관장 신광휴 교수(교직담당)

△출판부장 김영중 교수(네덜란드어과)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반병률 교수

△디아거스 편집인 겸 주간 성경준 교수

· 직원인사이동

△이진섭 서울캠퍼스 총무부처장→대학원 사무1과 사무과장 겸 후생과장

△장건 용인캠퍼스 총무부처장 겸 용인캠퍼스 학생부처장→총무과장, 세계민속자료실장 직무대리 겸 학생과장

· 승진

김진수 서울캠퍼스 기획조정부처장 겸 기획조정과장

신규 교원 내외국인 25명 임용돼

2001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에서 내국인 11명을 도합 25명의 교원을 선발했다. 내국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행정학과 이석원(남) 33세 서울대, new york univ.

▲ 법학과 이정 (남) 43세 한국외대, 동경대학

▲ 법학과 이훈동(남) 44세 한국외대, 한국외대

▲ 경영학과 이석규(남) 36세 서울대, univ.of southern california

▲ 한국어교육과 허용(남) 46세 한국외대, univ. of london

▲ 경제학과 한경동(남) 40세 서울대, virginia polytec institute & state univ.

▲ 수학전공 한종민(남) 32세 수학과, 서울대, 서울대

▲ 정보통계학전공 강기훈(남) 35세 물리학 서울대, 서울대

▲ 전자물리학전공 이석주(남) 35세 물리학 서울대, 서울대

▲ 화학전공 김용애 (여) 39세 고려대, univ. of pennsylvania

▲ 생명공학전공 권혁만 (남) 42세 서울대, brandeis univ.

이 사람

"국가보안법 철폐는 통일의 길로 나가는 일차적 과제입니다"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농성단'에 참가한 이윤재(서양 · 이태리어 97)군

"국가보안법 철폐는 통일의 길로 나가는 일차적 과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오직 보수 정치세력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이윤재(서양 · 이태리어 97)군.

이군과 함께 우리학교 학생 김민석(서양 · 영어 97)군을 포함한 대학생 6명은 지난 2월17일(토)일부터 3월 1일(수)까지 '서총련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농성단'에 참여했다.

어떻게 단식농성단에 참여했냐는 물음에 그는 "보수 정치 세력에게 대한 폐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농성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참여동기를 밝혔다.

13일 동안의 단식으로 그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오랜 단식의 끝이라 죽 밖에는 먹지 못하지만 참여자 모두 단식농성을 무사히 끝마쳐 뿌듯하다고 전했다.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위의 반응을 묻자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선 · 후배들은 많은 격려를 해줬어요"라고 전한다.

단식은 시작한지 5일이 지나면 배고픈 것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몸이 괴로운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농성단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여의도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할 때 한나라당 직원이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을 전해왔다.

"이번 농성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단식을 마친 것이 자랑스럽다. 이번에 함께 한 친구들과 각자 자신들의 학교에 돌아가 더욱 국가보안법철폐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무사히 농성을 끝마친 소감을 얘기하는 이군은 작년 서양어대 학생회장이기도 했다.

덧붙여 그는 "외대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운동이 조금씩 있다. 이젠 더욱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이다. 학우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군은 "개정과 폐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개정은 국민여론 달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꼭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월 안에 국가보안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해 보자는 계획이었는데 "임시 국회의 연기와 제도언론의 철저한 무관심으로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국가보안법은 분명히 폐지될 것이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주간일정표

	5월(화)	6월(목)	7월(수)	8월(목)	9월(금)	10월(토)
서울			새내기 맞이 호남우도 전수 판굿 노천 늦은 5시 30분			
용인	수강신청변경기간					
	1, 4학년	3, 4학년	2, 3학년	1, 2학년	1학년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05일)	북어국밥(₩1,500)	참치회덮밥(₩1,500)	쉼옥수수볶음밥(₩1,400)	부대찌개(₩1,500)	소고기버섯음덮밥(₩2,300)	짜장면(₩1,000)
화(06일)	콩나물국(₩1,000)	상추불고기비빔밥(₩1,500)	하이라이스(₩1,300)	순두부찌개(₩1,300)	닭개장(₩1,400)	우동(₩1,000)
수(07일)	돈육김치찌개(₩1,400)	팔보채(₩1,400)	햄버스텍(₩1,000)	대구매운탕(₩1,400)	사골꼬리국밥(₩1,400)	짬뽕(₩1,000)
목(08일)	소고기국밥(₩1,500)	돈육김치볶음덮밥(₩1,400)	짜장정식(₩1,500)	설렁탕(₩1,500)	돈육볶음덮밥(₩1,400)	스파게티(₩1,200)
금(09일)	무아묵국(₩1,000)	산채비빔밥(₩1,400)	소고기모둠야채밥(₩1,500)	육개장(₩1,400)	콩나물국밥(₩1,400)	잔치국수(₩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 1	중식2	분식	조 · 중식	석식	탕
월(05일)	제육볶음덮밥(₩1,400)	닭곰탕(₩1,800)	가락국수(₩1,200)	오징어무국(₩1,400)	호박된장국(₩1,400)	육개장(₩1,800)
화(06일)	삼색나물비빔밥(₩1,400)	사골우거지탕(₩1,800)	튀김우동(₩1,200)	어묵무채국(₩1,400)	미역국(₩1,400)	닭도리탕(₩1,800)
수(07일)	고추참치덮밥(₩1,400)	돈사태편백탕(₩1,800)	김치우동비빔(₩1,200)	된장무거지국(₩1,400)	홍합무국(₩1,400)	짜만두국(₩1,800)
목(08일)	소고기무국백반(₩1,400)	육개장(₩1,800)	잔치국수(₩1,200)	우렁이된장국(₩1,400)	북어해장국(₩1,400)	바지락순두부찌개(₩1,800)
금(09일)	콩국식물냉면(₩1,400)	삼계탕(₩1,800)	짜장면(₩1,200)	김치나시미국(₩1,400)	유부된장국(₩1,400)	해물짬뽕밥(₩1,800)

'%조정' 지양하고 '등록금 논의' 해야

합리적, 과학적 등록금 책정 위해 재원 확보방안 등 폭넓은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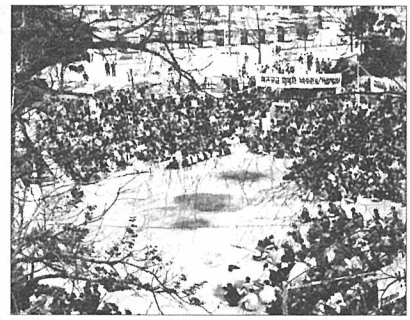
지난 방학동안 진행된 등록금조정위원회(등조위)는 합의 없이 종료됐다. 학교측은 신입생 9%, 재학생 7% 인상한 등록금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배송했다. 지난 99년 11월 전국적인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태어난 등조위는 다시 한번 등록금을 '조정'하지 못했다. 2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등조위의 답보는 학생과 학교간의 '조정'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2년 동안 진행된 등조위의 '조정'이란 말은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올해 등록금 과정에서도 학교측이 제안한 인상률 9%는 학생측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재학생의 경우 7%로 책정해 학교측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일면밖에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등록금 책정의 문제는 단순히 인상률 조정밖에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송범군은 "등록금 논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하는 평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등조위의 논의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번 등조위에서 등록금액이 산출된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측에서 주장한 등록금 인상률은 서강대를 위시한 서울 시내 5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의 평균을 제시한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학교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만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등조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당사자인 재단, 학교측 담당자와 학생들 간의 대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등록금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총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대표자, 교수측 대표 등 등록금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참가자들을 제외하자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재단측과 기획, 예산과 관련한 학교측 대표자와 학생 대표간의 회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양경수(동유럽·플란드어 95)군은 "책임있고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방학 한철 진행되는 시기적 촉박함도 실질적인 논의에서 장애가 되고 있다. 매년 2월 초순이 되면 합격자 발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시기적 한계 때문에 논의 진행이 일단락 됐으며, 시기적 한계성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의 책정 밖에 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학기에도 수시모집으로 10%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시기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논의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등조위는 예년과 달리 재단재무구조 등 자료공개가 충실했으며, 이를 통한 논의의 자세도 나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에 대한 재단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적됐다. 사립학교에서 재단은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대신하는 곳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의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자산을 확보, 총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하며, 이에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운영 경비에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 7조 1·2항, 학교법인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 제 5조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기준)



하지만, 우리학교 재단은 올해도 4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돼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투자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양경수(동유럽·플란드어 95)군은 "학교재산 매각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 의존률이 82.3%를(전국사립대평균 67%) 넘는 우리학교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충실히 논의돼 과학적인 등록금 논의기구가 절실 요구되고 있다.

대학부

등록금조정위원회 일지(1. 8~2. 3)

1차 등록금조정위원회

학교측 대표 정시모집 발표 이전에 등록금 예치금(미리 인상분을 고지하는 것) 확정할 것을 제안해 구성원 모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학교측이 서울 상위권 5개 대학에 맞춰 9% 인상을 제안한 것에 따라 구체적 자료를 분석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등록금 양측 당사자 2~3인 간에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함.

2차 등록금조정위원회

인상분과 관련한 논의에서 학생측은 구체적 인상내역에 대한 검토 후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에 동의하지만 아니면 동결이 되야 한다고 주장. 정시합격자 발표일인 2월 4일(금)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함.

3차 등록금조정위원회

등조위 권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벌어졌다. 학생측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등조위 규정 명확히할 것이 요구된 다는 의견에 등조위 안을 만든다면 수용될 것이라고 밝힘. 양측 등록금 책정에 관한 입장차이에서 평행선을 그었다.

4차 등록금조정위원회

학생 측 재단이 학교에 투자하는 액수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기채 활용 여부에 대한 의문제기.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매각은 평가단에서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과 정부가 본관신축건과 관련한 보조금 요구에 대해 분규대학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실을 답함. 학생측은 80%가 넘는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는 방안을 등조위에서 모색할 것을 제안함.

5차 등록금조정위원회

재정확충계획에 대해 협의함. 학교 대표 중장기발전 재정부분에 나와 있는 플렉스, 엠오디(M.O.D)사업 등 수익사업과 모금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속적인 수익사업과 뚜렷한 계획도 없다고 학생대표 반박함.

6차 등록금조정위원회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협의가 계속됨. 학교대표 등록금 9%인상안 고수에 대해 지속적, 장기적 재정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이번 혜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등록금 동결 입장을 밝히고 등조위 마침.

신규임용 과정에서 잡음 일어

공정한 평가위해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이번 신규임용과 관련한 심사결과와 절차에 대해 일부 과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학교는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세칙에 의거해 선발과정을 거쳤다. 이에 영어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등의 일부교수들이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행법과 사회법 과목에서 2명의 교수를 선발한 법학과 일부 교수들은 학과심사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규임용세칙에 따르면 학과심사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되는데, 학과 교수들이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을 하는 전공심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다. 문제는 학과 교수들이 평점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학과 모교수에 따르면 "모든 교수들이 같은 시간에 평점표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나중에 제출하는 등 평가에 부정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학과 학과장 김동훈 교수는 "평정표가 일괄 처리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학과 심사 결과에 날인을 하지 않아 항의를 표시했으나 인사위원회는 학과 심사결과대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모교수는 "학과와 학교측간의 인사관련문제는 왜곡된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어학부는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세칙을 변경 적용한 것과 관련해 학과심사 참관인과 학부 일부교수들간의 견해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신규임용에서 영어학부는 인사규정 10조 1항 상신 절차 '교원의 신규임용 시 소속학과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함을 바탕으로 총장과 서양어대 학장의 약속과 함께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영어에세이 시험보기 △교육경력 2년 자격 이상 만점 처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된 논문에도 평가적용 △문학/영어 발표 분리' 등 학과 나름의 적용기준을 적용해 신규임용자 후보에 대해 평가했다. 하지만, 영어학부는 학과심사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이 이를 인사위원회 보고시 왜곡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인사위원회는 '문학/영어 전공발표심사 분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반려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영어학부는 지난달 3일(토) 합동심사를 한 결과를 다시 상신했지만 인사위원회는 1, 2순위를 바꾸어 총장에게 재청했다. 이와 관련해 영어학부 일부교수는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항의했으며, 총장은 영어학부 신임교원 충원에 대해 이사회에의 제청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학부

사설

또 다시 새겨보는 3·1절

3·1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야

올해도 3·1절은 개강에 때맞춰 어김없이 찾아왔다. 과거 일제의 침략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일본 지도층인사의 '망언'이나 일본교과서 문제도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의 신문, 방송 역시 일제 잔재와 친일파 청산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3·1절 특집 꾸미기에 바빴고, 사회단체들의 일제 규탄대회에 관한 소식이 뉴스의 주요부분을 차지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관동군 출신의 일본인들이 일본문부과학성을 방문하고, 과거 자신들이 일본의 대륙침략의 선봉대였음을 고백하는 한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를 비판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우익들의 공세속에서도 학문적, 인류적 양심에 따라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침략주의의 대두를 막는 길이라고 믿는 양심적 일본인들의 외로운 투쟁의 숙연함을 느낀다. 이들의 투쟁에서 평화, 국제친선, 인도주의에 기초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희망의 싹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강 첫 사설의 주제로 3·1절을 잡은 것은 어딘지 구태의연한 감을 지울 수 없다. 굳이 이유를 대지면, 그 동안 3·1운동이 보여주었던 민족적, 사회적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3·1운동은 단순한 항일운동으로 보게 되면 명백히 실패한 운동이었고, 3·1절 역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념일로서의 의의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3·1운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3·1운동은 대다수 농민들을 비롯한 이 땅의 민초들이 변혁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아울러 3·1운동은 신분, 학벌, 성별, 지연, 당파, 이념 그리고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민족이 전국적으로 봉기한 민족대단결의 통일운동이었다. 그러기에 3·1운동은 좌우익의 정치세력과 남북한 정권 모두가 기념하는 '진정한 민족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3·1운동은 또한 일본제국주의에 내재해 있던 침략, 억압, 그리고 온갖 차별을 반대한 평화, 해방, 평등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 운동이었다. 여기에서 3·1운동이 지닌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제주의적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로 눈을 돌리면,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교훈의 현재적인 의미는 매섭도록 아프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외세가 들씌운 분단의 굴레를 벗기는커녕, 50년간 헤어진 가족들간의 자유로운 왕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정권에 이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억압과 착취의 질은 그림자가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했던 탄압적인 법률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양심수와 수배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IMF체제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신분, 학연, 지연, 당파, 종교적 차이에 근거한 배타적인 집단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서로간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그마한 차이를 부풀림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선조들이 3·1운동을 통하여 타파하고자 했던 지연, 학벌, 신분, 종교, 이념적 차이에 너무나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학술단신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봄학기 세계역사기행 회원 모집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2001년 봄학기 세계역사문화기행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

오는 13일(화)부터 시작,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화요강좌, 중부유럽의 역사, 문화를 고찰하는 목요강좌, 사진·비디오 촬영반, 생활영어교실로 나뉘어지는 이번 세계역사문화기행은 일반인,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25만원씩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요강좌 : 독일역사문화기행〉
3월 13일부터 주 1회(13:30~15:20)
2001년 7월 10일 경 7-8일 일정의 답사기행(여행비 별도)
책임진행 : 조관연 박사(031-330-4849)
〈목요강좌 : 중부유럽 역사문화기행〉
3월 15일부터 주 1회(13:30~15:20)
2001년 7월 10일경 7~8일 일정의 답사기행(여행비 별도)
책임진행 : 김지영 박사(031-330-4146)
〈사진·비디오 촬영반〉
3월 13일부터 주2회 14주 (화/목 11:00~12:30)
진행 : 영상문화실(031-330-4849, 4859)
〈생활영어교실〉
·발음/청취/회화 3월 13일부터 주2회 14주 (화/목 11:00~12:30)
진행 : 연수팀(031-330-4803, 4808)
·접·수 : 2월 26일(月)부터 월~금(09:30~17:00) (제일은행 : 609-20-499714 한국외대, 입금 후 전화요망)

세계를 돌아보게 바라보는 힘

가라사니

NMD (국가미사일 방어체제)

'미국 부시행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혀온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에 대해 정부가 2일 발표한 공식입장은 찬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2001년 3월 3일자 한겨레신문중 발췌)

흔히 NMD라 표기되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망이다. 위성 등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감지한 뒤 본토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미사일을 쏘아 폭발시키는 것이 이 방어체제의 개념이다. 이 계획은 1980년대 원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전략방위구상(SDI)'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 규모가 축소됐다.

한편, NMD는 미국의 우방국과 해외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와 궤를 같이한다.

만나보기 -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받은 우리학교 이장희 (국제법)교수

책 한권에 씌워진 3년의 무게

저서 '나는야 통일일세대' 이적성 시비로 기소… 최근 무죄판결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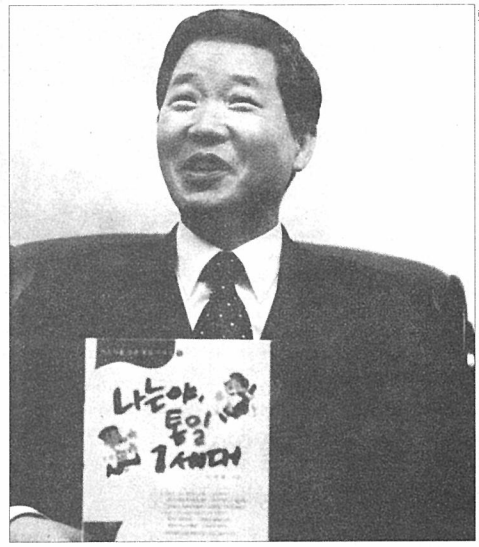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 일세대'의 이적성 논란으로 기소됐던 우리학교 이장희(국제법) 교수가 3년 2개월여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23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나는야 통일 일세대'는 지난 95년 10월 발간돼 대통령 자문기관의 기관지 '민주평통'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한 책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뒤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 이 책에 대한 이적성 시비가 일었고 자유총연맹 등의 보수적 성향을 띤 50여개 사회단체들은 이 교수와 통일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 후, 두 번의 영장기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죄로 이 교수와 당시 출판사 직원 김지화(30)씨를 불구속 기소해 3년 2개월간의 재판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이 교수의 사례는 97년 최장집 교수 사건과는 달리 공인이 아닌 개인교수의 연구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상검증의 잣대가 드리워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 교수를 만나 그간의 사건 진행과정과 이 사건이 학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 우리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97년 12월 저서 '나는야 통일일세대' 이적성 논란으로 기소 지난 2월 23일(금) 무죄판결을 받았다.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을 던진 소년은 이 사실을 금방 잊지만 개구리는 죽거나, 평생 불구로 지내는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지난 3년 2개월 동안 끊임없는 법정공방전을 벌이던 나의 마음이 바로 그 개구리의 심정이었다." 무죄판결 후 각계에서 밀려드는 원고청탁과 인터뷰 요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 교수는 담담하게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대 언론재벌인 '월간조선'과 50여 개가 넘는 보수단체들과의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연상시키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책 '나는야 통일 일세대'의 내용과 집필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사람' 하면 머리에 뿔 달린 빨갱이만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반공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의 통일완성 세대인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보자는 생각에서 책을 썼다. 책의 구성은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가 될까?' '표준어는 어떻게 정할까?' 등 통일에 대한 27개의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쓴 글, 이에 대한 나의 해설, 편집자의 북한에 대한 설명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발간 직후에는 통일부로부터 '잘 썼다'는 격려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 교수의 설명처럼 국가기관의 호평을 받던 책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97년 7월. 당시 '월간조선'은 책 내용중 △나라이름, 수도, 공휴일 등이 어떻게 바뀔까를 논한 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 서술한 점 △김일성 찬양노래 전문과 북한의 애국가를 게재한 점등을 들어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3일(금) 판결문에서 "책자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닌 이상,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는 국가존립을 명백히 위협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범위를 극히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남남대화

-당시 사건은 대선을 앞둔 '북풍공작'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전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북풍사건의 일환이다. 95년 발행된 책이 2년간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대선정국에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검찰 또한 막 고발 조치당했던 97년 10월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대통령 선거가 열을 뿜기 시작한 12월 11일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도 의혹이 짙다"

사건이후 학자로서 이 교수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고충 또한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선 심각한 자기검열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보수적 색채를 띤 회의에는 이예 발표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또한 사건 이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 정부의 주요 자문위원에서 모두 임기 전에 해촉, 탈락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현행 사립학교법제상 교원의 경우 형사고발이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어 지난 3년간 나의 위치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번 무죄판결이 학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술 발표물에 대한 언론보도의 피해를 본 학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선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냉전적 벨트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너무도 위협을 많이 당해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이념적 소모전이 종결되고 헌법상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수는 그동안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줄곧 이러한 견해를 피력해왔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남북대화 이전에 '남남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성과 앞에서도 민족문제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사회제계층간의 진솔한 대화, 정확한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너무도 적었다. 이로인한 오해와 갈등은 한국현대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라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북에 대한 소아병적인 반응 버려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법정공방을 하며 모은 자료들과 기사들을 엮어 하나의 사건 자료집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언론보도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 말경에는 '나는야 통일 일세대'를 현 시점과 맞게 재구상해 개정판을 낼 생각이 있다. 외부단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고민중이라고 한다" 고 밝히는 이 교수는 한달여 후에 있을 항소(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관례상 거의 모든 경우 항소절차가 이루어진다)에 대해서는 자신있어하는 눈치다.

사건과 관련 왜곡보도한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도 승소했고 올해 말경에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7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 달에 한번 꼴로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하고 해외 학술여행조차 여의치 않았던 지난 3년 2개월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미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런 말을 전한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소아병적이고 미성숙된 우리사회 일부지식인들의 편협된 반응에 학자로서,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서글픔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법에 얽어 매 법정에서 3년 이상이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고통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소아병적이고 편협된 반응에 학자로서, 시민운동가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서글픔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학술부

할 일과 숨을 곳

얼마전 '세계경영'이라는 미명아래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고 도피행활을 하고 있는 김우중씨. 그가 예전에 펴낸 책 또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제목의 이 책은 얼마전 민주노총이 발표한 실업자 수 800만명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현명한 크로니클자 지금의 대우의 상황에 맞게 제목을 다시 정했다는데·· "세상은 넓고 숨을 곳은 많다"

〈흠〉

'구조조정'의 말뜻을 경제사전에서 찾아보면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문제로 시끌시끌한 요즘, 정부부처에 필요한 것은 국어사전 아닐까?

〈환동〉

얼마 전 딴지일보에서 국어사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단어에 새로이 의미가 추가됐다는데 예시를 하나 보자.

영삼 ① 말귀를 못알아 먹거나 지나친 공상에 빠져있는 우매한 이를 일컫는 말. ② 지력, 재질이 변변치 못한 사람.③ 남을 얕잡아 일컫는 말.

만약 이런 국어사전의 '교육계 버전'이 나온다면 요런 단어가 추가되지 않을까..

대학 ① 2천 5백만원 이상이 필요한 곳(등록금, 생활비 포함) ② 중간에 등록금이 오를 수 있으니 300여만원이 덤으로 더 필요한 곳 ③ 돈없을 경우를 대비해 휴학신청서를 구비해 놓고 다녀야 하는 곳

〈훈〉

딴지사전 교육계 버전

이익훈어학원 3월 大개강

영어의 매니아들이 모이는 학원,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숨건 사람들이 사는 학원

최강의 전문강사진과 최첨단 시설!

고득점 오픈을 일찐 시험이 즐겁습니다

TOEFL
정규 종합 / 기본 종합 / 문제 풀이 해설반 / 기본토플 L/C CBT 실전청취 / 전략토플 L/C 토플문법 / 실전독해 / 초중급 독해 TWE(1~3단계)/토플어휘
GRE종합/GRE Verbal/ GMAT 정규 종합 GMAT실전반/ LSAT/US College Communication

TOEIC·TEPS
토익 정규 종합/토익기본 종합/토익L/C/ 토익R/C/실전 토익종합/토익실전 문제풀이/TEPS 정규종합/텝스 L/C/텝스 R/C/ TEPS 기본종합 / TEPS 실전 문제 풀이

"영어귀"가 열리면 영어가 즐겁습니다

영어청취
기초청취/스크린핵심청취 기초 AFKN/시사 AFKN/ 시사청취/미국인 회화청취/ TOTAL AFKN/Super AFKN/ 고급시사청취/AP뉴스

통역대학원
통대 왕기초반/기초반/입시반/실전반/ 통대 정규 종합/고급독해/ 고급청취/청취통역
※대내 최다 합격생 배출 (2001년 외대 50명중 22명, 이대 44명중 15명)

영어 기초 프로그램
기초 영문법/시사독해/영작문/ Vocabulary/영어회화/

수시 등록

강남 : 3472-3322, 종로 : 735-3322 / www.ike.co.kr (500만 육박 최다방문 어학 사이트)

프랑스語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와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caise

'2001년 3·4월 학기 개강 : 3월5일(월)

BEF Ⅰ, MA Ⅰ Ⅱ, REF Ⅰ Ⅱ, PAN Ⅰ Ⅱ Ⅲ, ESP Ⅱ, 자유회화반, 시사뉴스반, 독해
·작문반,한대가초문법반, 학위준비반,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문법·회화 주말반(토) 개강"

'2001년 알리앙스 주관시험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상업 무역 불어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유학상담 및 수속대행
·Etudes en France
·voyages
·Stages de langue
이에서 알리앙스 에서 식섭하세요

2001년 봄·여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755-4972, 5702(중구)
nam-seoul ☎555-1125, 1126(강남)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Alliance Francaise

이인섭안과의원

근시·난시·교정전문크리닉

진료시간
평일:10:00~18:00
토요일:10:00~16:00
공휴일:휴진
http://www.doctor.co.kr/한국/이인섭

제일콘택트·안경

922-0017(代)
돈암동 4거리 제일은행 3층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젊은언어 푸른미래 http://www.chungmoon.co.kr

청문외국어학원

종각 옆 T. 738-5151

젊은언어 푸른미래

한인회화, 미인회화
영어청취, 영문법
TOEIC, TOEFL, TEPS
통역 대학원반(영어,일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주말강좌

◆개강 : 매월 초◆
◆부설유학센터◆

www.chungmoon.co.kr

심층보도 - 올해 취업난 들여다 보기

극심한 취업난 속 갈 곳 없는 졸업생

새내기들의 입학식 날이자 개강 첫날인 지난 2일(금). 신입생들의 활기로 시끌벅적하던 학교에 어둠이 지기 시작해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꺼져갈 즈음에도 오히려 더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다.

개강 날부터 도서관에서 밤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배움터 도서관 4층으로 올라가 열람실을 둘러보았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열람실에는 70-80명 가량의 사람들이 두꺼운 책과 씨름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것은 '영어'.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포기하고 취업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김모 군(서양·영어 94)은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아 토익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기자를 희망하지만 올해 졸업한 동기들이 반수도 취업 못하는 걸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97년 IMF 경제 관리 체제 이후 최악의 대졸 취업난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올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과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하고 집계하는 순수 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계 당국의 분석 등 올해 졸업생들에게 통계지수는 암울한 미래만을 제시한다.

기존의 15만여 명에 달하는 취업 재수생과 올해 졸업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들 중 직업을 얻지 못한 16만4465명을 더하면 미취업 대졸자만 30여만 명을 훨씬 넘는다. 지난해 30대 기업의 취업경쟁률이 74대 1을 기록했고 어떤 기업의 경우 15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가운데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적성이나 전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취직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대졸자 순수 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어문계열은 기업 측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는 분석을 제시하지만 도서관 휴게실에서 만난 김모 양(서양·영어 95)은 이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단순히 취업률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취업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자신도 "취업준비에 지쳤다. 이젠 눈 높이를 낮춰 어떤 곳이든 취직부터 하고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인 Work-Net에 접수된 구직 현황에 따르면 올 3/4분기 대졸 취업자 중 31%가 단순 노무직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25.6%, 준 전문직 19.9%, 전문직 14.8%에 비추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취업난이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정적인 취업 기반이었던 제조업의 경우 90년대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현 상황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개개인의 경쟁력 함양과 같은 미시적 시각보다는 사회 전체를 보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제 접근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고3수험생의 입시 관문보다 더 뚫기 어렵다는 '취업 관문'에 막혀있는 대학 졸업생. 오늘도 이들은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학교 취업 재수생 김모(상경·무역 96)군 인터뷰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해 달라

93학번으로 98년 8월에 졸업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랜구축을 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어떤 회사에 지원했었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대기업 한 군데를 비롯해 다른 대기업에도 5-6군데 원서를 넣어봤고 생명보험사 등에도 지원해봤지만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게 대부분이다. 토익 점수를 800-900점대를 요구하니 그런 것 같다. 참고로 난 토익 700점 대에 학점 3.0정도이다.

-주위 사람들의 상황은?

내 동기 중에서도 취업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대학원 등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 현 취업난을 어떻게 보는가

취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극소수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을 골라서 취업할 수 있고 나처럼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십 군데 원서를 넣어도 다 실패한다.

-지금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확실한 계획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겠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토익 공부를 하거나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 구인 정보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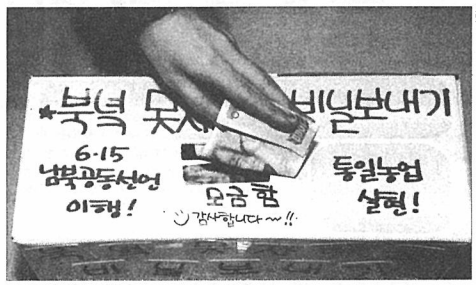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 보도 -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

"올 가을엔 북녘에서 풍작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북녘땅의 어린 못자리를 덮어줄 비닐 8000톤을 실은 배가 인천항을 출발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주축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제 사회단체들이 함께한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농은 지난 1월부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보낼 못자리용 비닐마련 모금운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조선 노동당 창건 기념식 참석당시 만난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관계자와 만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은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기후적 조건 때문에 씨뿌리기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짧게 해야하는데 추위가 올 경우 이를 막아줄 비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린 못자리가 늦서리를 맞아 죽는 바람에 작황이 좋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방북 후 전농에서는 12월에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상호교류, 협력이라는 공동선언 정신을 농민들이 앞장서서 실천해보자는 취지에서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농 대의협력국장 배형택씨가 말하는 '북녘 못자리 비닐 보내기운동'의 추진 배경이다.



못자리용 비닐은 1개당(100M) 15,000원으로 처음에는 전농차원에서 1만개, 타 단체에서 1만개 등 총 6억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3월 2일 현재 집계된 금액은 3억원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1월 두 차례의 혹설로 남한의 많은 농가가 피해입은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량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적은 액수가 모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 단체와의 연계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모금운동이 가장 열성적으로 벌어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 사업 관련한 자체 운동본부도 만들고 1농민 1구좌(5000원)운동을 열심히 벌여 농민, 공무원, 학생등이 다양하게 참여,전체 모금액의 1/3에 달하는 1억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전농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2만 7천여개의 못자리용 비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금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몇몇 농민들이 전하는 '우리도 정말 어려운데 북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등의 반응과 북에 대한 편견으로 애초부터 사업취지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전농 정광훈 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어려운 사람이 다른 어려운 사람의 속사정을 잘 압니다. 작게나마 우리들의 작은 성의가 이북 어느 산골 논다랑이에서 어린 모로 자랄 것입니다. 가족, 친척, 실향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적으로 진행합시다" 며 작은 실천을 통한 통일의지를 강조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항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동으로 모아진 소중한 비닐이 부디 북에서도 유용하게 쓰여 근 몇 년만에 '풍작'이 들기를 기대해본다.

사회부

그·림·타·래 <13>

-정현도-

사회단신

오는 6일(화) SOFA재협상 촉구 집회 열어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은 오는 6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SOFA재협상 촉구와 외교통일위 국회비준 찬성 9적 규탄 집회'를 연다. 7일(수) 김 대통령 방미에 앞서 SOFA 재협상에 한미당국이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고 불평등한 SOFA개정안에 찬성한 9인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자리가 될 이번 집회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등 연대 단체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행사는 SOFA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굴욕적인 SOFA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정치연설과 율동공연, 이후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진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결의마당'에서는 국회의원 9적 화형식이 준비되어 있다.

서총련 소속 학생들, 국회 앞에서 기습시위 벌여

지난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50여명이 국회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는 지난 1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총련 단식농성단' 소속 학생들도 참여했다.

오전 11시 30분 국회앞에 도착한 이들은 대열을 이루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국회는 역사와 민중의 물음에 답하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국회정문으로 행진을 한 후,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가보안법철폐 서명용지를 국회 앞마당에 뿌렸다. 이후, 이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했다.

학마을 현장

반주의 언어를 찾아서

가녀-(11)

학교 운동장의 한쪽 가녀에는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었다.
밤하늘에는 가녀이 희부연 구름장들이 성글게 널려 있었다.

가녀→ 변두리나 가장자리를 흔히 칭하는 말

학내 사이트 소개

"나는 'HUFSBOOK'에서 싸고 좋은 책을 구했다!"

"선배 혹시 ○○책 있어요?"

새 학기 가장 분주한 모습 중의 하나는 새 교재를 구하는 일 일 것이다. 과 생활을 열심히 한 발 넓은 사람이라면 아는 선배에게 얻을 수 있겠고, 전공서적은 할인도 안 돼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둘 중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HUFSBOOK'에서 싸고 좋은 책을 구했다!"

얼마전 외대생을 위한 헌책교환 홈페이지 'HUFSBOOK(http://my.dreamwiz.com/hufsbook)'이 새로히 단장하여 문을 열었다. 서울배움터 장재용(서양·불어 95)군이 이 사이트를 만든 장본인으로 지난 학기 기말고사 때보다 학과별 게시판과 용인배움터의 게시판을 보완, 개편하여 선보이게 된 것이다.

"전공서적부터 심지어는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싸게 사고 파는 경북대 버룩시장이라는 상설게시판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하는 장군은 막연히 생각해오던 것을 기말고사때즈음 시험삼아 만들어보았다고 한다.

각 학과별로 전공서적과 고시, 자격증 관련서적 등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선배가 후배들에게 공부, 취업, 고시, 자격증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마당, 기타생활 관련하여 하숙 및 자취집, 각종 가구, 컴퓨터 및 전자기기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시판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학내 홈페이지 등을 링크시켜놓아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수업의 경우 통상 한 과목에 100명에서 200명이 듣고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본 책들은 집에서 먼지와 함께 쌓여지는 것이 다반사다"고 전하는 장군은 이런 책들을 서로 교환한다면 결국 더욱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자보를 이용하여 많은 헌책을 사고 팔았던 장군은 헌책의 가격책정 기준은 정가의 30%가 적정하다고 말한다. 이는 차후에 자신도 구매자가 될수 있으므로 가격을 위와 같이 통일하여 책정함으로써 서로의 거래가 원활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아직은 무료게시판이라서 게시판이 불안정하고 검색기능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점점 보완시켜가겠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헌책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군은 전한다.

앞으로 이 사이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구로, 나아가 교내 책교환 분위기 조성과 책 돌려보기 환경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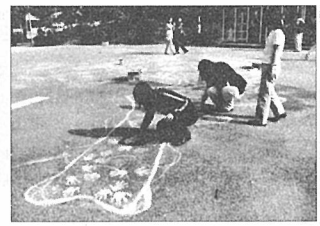
외대생을 위한 헌책교환 홈페이지
(HUFS BOOK)-
http://my.dreamwiz.com/hufsbook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외대문화 2001 - ① 문화공연장, 행사소개

누가, 언제, 어디서 문화를?

서울배움터


사진제

붉은 광장

학내 무슨일이 열리는지 알고 싶다면 붉은 광장으로 가라!

붉은 광장은 바닥에 깔려있는 아스팔트가 붉어진 이름으로 공연과 함께 소규모의 이벤트, 전시회가 주로 열리는 곳이다.

학내 어디를 가든 붉은광장을 거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붉은 광장은 학내 여론형성의 중심이기도 하다.

여러행사들의 포스터나 홍보물들이 일상적으로 걸려있거나 바닥에 깔려있고 긴 판넬을 이은 거리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가장 빈번히 열린다.

한편 도서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학내 소음문제에 있어 거론되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진제

대학원 소극장

학내에서 열리는 각종 영화제나 공연 등이 주로 열리는 곳으로 대학원 1층에 자리잡고 있다.

150여명정도가 수용되는 아담한 규모의 이 소극장은 계단식 좌석배치와 학내 최상의 조명이 그 특징이다.

영상을 이용하는 강의와 함께 쓰이고 강의동 안에 있어 사용시간이 강의와 겹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서대 시네마테크

외대 내 영화제는 꽤 빈번히 열리는 편이다. 그러나 보통 한차례의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버려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서양어대 학생회차원에서 매주 목요일 꾸준한 자리를 마련한 것, 이것이 바로 시네마테크다. 지난 해 시네마테크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와이즈와이드 셋이나 매달 테마를 잡아 진행했던 것들이 학우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었다.

문의) 서양어대학생회실- 4065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용인배움터

사진제

민주광장

용인캠퍼스 학생이라도 학내에 민주광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광장은 학생회관 앞에 있는 흔히 우리가 '학생회관 앞 마당'이라고 칭하는 곳을 말한다.

어문관 앞에 있는 해방광장과 더불어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를 잡음으로서 학내여론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곳은 학내 집회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광장으로 진정한 민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로 동아리들의 전시회와 공연들이 열리며 학내 집회의 열린 광장으로도 사용된다.

사진제

후복관 소극장

'문화의 블모지'라고 불리우는 외대 용인캠퍼스, 그 지역상의 특성으로 밤과 후에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서인지 학생들은 어떤 문화행사가 열리더라도 관심을 갖기가 힘들다. 그런 문화적 환경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학회공연이나 동아리공연들이 자주 열리는 곳, 바로 후복관 3층에 자리잡은 소극장이다. 지연대 강당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 오히려 아담하기까지 한 소극장은 영상을 이용한 강의실로도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목요영화제

민족영화제 빛모습은 지난 해에 이어 매주 목요일 후복관 소극장에서 '목요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왕산 문화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요영화제를 이어 온 빛모습은 기존의 극장에서 걸리지 않았던 예술작품이라면가 심의에 걸려 쉽게 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위주로 상영해 학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스탠리 큐브릭 서거 80주년을 맞이하여 열었던 스탠리큐브릭 작가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빛모습- 4404

생활시평

'훈민정음' 놀이

얼마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웃지못할 놀이를 배워왔다. 그 놀이는 함께 빙 둘러앉아 여러 놀이를 할 때에 놀이와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의 약속을 밑바탕에 두는 것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벌칙을 받는다. 그 약속이란 것이 문제일타인데 사실 별게 아니었다. 대화할 때나 놀이를 진행할 때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것으로 이름하여 '훈민정음 놀이'라고 한다.

"자, 그럼 게임 시작!"이라고 누군가 외쳤다. 재밌게도 그것부터 훈민정음 놀이에 걸렸다. 그러자 그 친구는 "오 마이 갓"이라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다는 듯을 보였다. 그러나 또 한번 "오 마이 갓"으로 훈민정음 놀이에 걸린셈이 되었다. 모두들 박장대소하며 그 친구의 둔함을 놀려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친구가 단지 둔한 것만은 아니었다.

쥬스, 참치캔으로 시작하여 디스, 하이트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상품의 상호명과 이름이 대부분 외래어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놀이를 진행했지만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에는 놀랄 정도로 외래어가 많이 묻어났다. 어떤 친구는 자꾸 걸리게 되자 급기야 점점 말 수가 없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자 익숙한 외래어를 한글로 고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야, 이 놀이 너무 어려워, 하지 말자…"

'게임'이라는 말을 '놀이'라고 바꾸어 말하니 처음에는 왠지 어색하고 귀에 그 말이 탁 걸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놀이, 놀이라고 되새겨 발음해보니 어감이 참 따뜻하고 예뻤다. 쥬스를 노란국물(?), 글쁘으로 참치캔을 참치통조림이라고 고쳐불렀다. 그러고보니 한글로 고쳐부른 이름은 그 내용이나 성격을 설명하게 되어 훨씬 단어를 이해하는 데 쉬웠다.

나중에는 점점 하나의 사물을 놓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말로 불러이야는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또하나의 의문이 문득 들었다. '글쁘'과 '쥬스'의 차이점, 왜인지 한글로 고쳐부른 우리말은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왔다. 오히려 외래어로 된 단어는 풍위있고 월등하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비록 놀이를 하면서 자주 틀려 벌칙으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내 언어습관과 고민없이 불렀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치고자 했던 그 자리가 기억에 남는다.

우리 한 번 생활 속에서 늘 '훈민정음 놀이'를 해 보는 건 어떨까? 벌칙은 그 놀이를 내 옆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하자.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꼭 읽어야 할 책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 1

"읽으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통쾌하게 웃기도 하면서 지금 나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요"

전세나
(동양·태국어 00)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마치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져요."

강은영
(상경·경영 99)

"문학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문학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포괄적 설명을 제공한다"

김상열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그 동안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규정되어 있던 것인지도 몰라요"

김수정
(동양·중국어 96)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
/황금가지/7500원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타인의 입장에 처해보면 된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이 말을 가장 큰 전제로 내걸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소설에서 '이갈리아'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여성이 제 1의 성, 남성이 제 2의 성으로 분류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통념과 생활상을 완전히 바꾸어 그려놓는다. 이런 황당한 설정으로 어떻게 억울함을 느끼는지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지를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실컷 웃다보면, 우리사회의 모순과 부당함에 대해 자연스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나나미
/한길사/8500원

이 책은 로마역사를 독특한 역사관으로 해석했다.

로마인들이 문화를 포용해 대제국을 건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92년 1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시작하여, 현재 9권 '현제의 세기'까지 발간된 이 책은 이야기식으로 꾸며진 역사책이다.

저자 시오노나나미는 로마를 특치한 서기 98년에서 101년까지를 동시대 로마인들도 황금시대라고 부른 이유를 분석함으로서 정치와 정치가의 보편적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문학이론입문

테리이글턴
/인간사랑/13000원

저자 이글턴 특유의 어법과 유머가 가득한 이 책은 현대의 문학이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 이론서이다. 문학의 다각성과 그 해석의 다양한 정보의 시대에 문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는 이 책에서는 낭만주의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학이론들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현상학, 해석학, 수용이론, 구조주의, 탈 구조주의 등 난해한 비평구체와 개념들이 저자의 비판적 성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세대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반성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안의 파시즘

임지현외
/삼인/8500원

진보적 계간지 '당대비평'의 8.9.10호에서 다룬 동명의 특집에 실린 글 등을 묶은 책으로 우리 안에 내면화된 일상적파시즘 읽기를 시도한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비판세력이 거냥해 왔던 '정치적 파시즘 혹은 제도적 파시즘의 극복'이 그 자체에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일상적 파시즘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되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구조화되고 내면화된 규율권력에 대한 싸움을 일상적 차원으로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당위를 제기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행사평 - 양 배움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재미와 내용, 두마리 토끼 잡을 순 없나요?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모두 자신감 넘치고 힘있어 보여 인상적이었다"(권호석·동학·일본어 01), "운동권 분위기의 새터 행사들은 오히려 흥을 깨고 거부감마저 들게 한다"(이주한·동학·태국어 97)

새터의 중앙공연을 비롯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 있을 것인가'와 '얼마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학문화다운 풍부함과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가지 물음에 고민하게 된다. 또한 새터행사를 참여한 사람도 이 두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을 갖는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대학사회를 경험하고 대학문화를 맛 보게 되는 새터의 공간은 과, 단대, 나아가 학교라는 울타리의 소속감 또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곳이다. 단순히 교내 시설소개, 수강신청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들을 습득하는 60, 70년대의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는 자리, 나를 비롯한 우리모두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 우리나라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 대학생활을 함께 그리는 자리이다.

이렇기에 새터는 재밌고 즐거워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대학문화다운 풍부함과 진지함 또한 갖춰야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 두 요소가 '널 레마'다"고 하는 어느 한 집행부의 말처럼 이번 양배움터의 새터 또한 전반적으로 이 두가지를 서로 충분히 보완하여 살려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이것은 매해 같은 행사를 답습하는 모습 속에서도 고민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다.

사진제공

사진제공

사진제공

서울배움터 - 새내기 문예단

새터 마지막 날 있었던 중앙 공연에서 율동을 선보였던 새내기 문예단. 권오진(서양·독일어 01), 장혜인(서양·영어 01), 김준영(동양·일어 01)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아담한 문예단은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박수를 받았다. 문예단원 중 한 명인 김준영 군은 대학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새내기 문예단에 참가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하는 그는, "이젠 대인 관계 측면에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큰 소득"이라며 밝게 웃었다. "하지만 더 많은 동기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내년에는 이러한 새내기 중심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용인배움터 - 문화학교

"탈춤은 무척 어려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문화학교에서 고성 오광대 덧배기춤을 배운 윤상필(경상·경제 01)군은 전한다.

대학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3개동아리와 언론협의회의 준비로 열린 문화학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무기인 각각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새내기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대학문화를 함께 누려보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탈춤도 추고 수화로 자기 이름도 써보고, 독도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등 새내기들이 활발한 모습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공연보도 - 남북통합 백범 추모공연 기금마련 통일음악회

아쉬움 남긴 김구 선생과의 만남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겨레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외치던 김구선생이 서거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민족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22일(목)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합 백범 추모공연 기금마련 통일음악회'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행사는 민족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나라사랑·겨레사랑 정신을 회고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백범정신실천연합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남북의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하는 '백범추모공연' 기금모금도 진행됐다. 공연은 방송인 정재환씨의 사회로 1948년 남북연석회의 당시 김구선생의 육성에 이어 박두진 시인의 '외 백범선생' 시 낭송으로 시작됐다. 그 후 백범정신실천연합 신환균 위원장의 축사와 사물놀이패 노름마치, 가수 장시익, 이정현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 평소 김구선생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공연 중간에는 영상물을 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중, 국민장으로 치뤄진 김구선생의 장례식 영상물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0여명이라는 적은 관객은 당초 목적이었던 남북통합 백범 추모공연 기금마련이라는 의의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경석군은 "당초 결정됐던 출연자들의 불참과 부실한 행사 내용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최측인 백범정신실천연합 실장 차애민씨는 "홍보, 진행 등의 여러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드러났지만 적으나마 관객들이 온 것에서 다음 공연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를 계기로 다음공연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백범의 정신을 재조명해 본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행사의 내용은 그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의 통일음악회를 기대해본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김현지기자

김현지기자

만나보기 - 통일음악회 사회를 본 방송인 정재환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계기는?

내가 속한 '우리민족서로돕기협회'에서 후원을 맡아 나에게 사회자 제안이 들어왔다. '민족의 하나됨을 취한다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제안을 쾌히 승낙했다.

이런 행사에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당연히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연예인들이 방송국에서는 많은 돈을 받고 활동하지만 이런 행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지 이런 자리에서 동료들을 보면 더욱 반갑다.

관객이 의외로 적게 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취지나 내용면에서 훌륭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흥보가 안 되어 관객이 적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주제나 내용이 사람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사회를 본 소감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자 중 내가 뽑혀 사회를 본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를 봤다. 덧붙여 말하자면 동료들, 학생들 시민 모두가 이런 공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민족정신과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단신

서울

동연, '새내기 내 동아리 찾기'

동아리연합회가 오늘 5일부터 9일(금)까지 5일간 배움터 곳곳에서 '새내기 내동아리 찾기'를 개최한다.

분과별 아침선전전, 강의실 선전전, 동아리 홍보 거리전 등이 그 기본축으로 7, 8, 9일(금)에는 동아리 소개 영상물을 붉은광장에서 상영하기도 한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동아리가 만들어나가는 대학문화를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직접 뛰어다니며 새내기들에게 전하고 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동아리연합회장 오하나(동양·베트남어 98)양은 전한다.

'고창 우도 동계 전수 발표회 및 새내기 맞이 판굿' 열어

오는 7일(수) 늦은 5시 노천극장에서는 외대풍물패 연합의 준비로 '고창 우도 동계 전수 발표회 및 새내기 맞이 판굿'이 열린다. 지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라도 고창 지방에서 진행되었던 전수를 바탕으로 열리는 이번 판굿은 총 세 마당과 대동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판굿은 고창에서 내려오는 전통판굿으로 지난 방학동안 인간문화재인 1세대 할아버지들로부터 직접 전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정순영(서양·서반아어 00)양은 이번 판굿이 새내기들에게 신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의 대중적인 풍물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더 나은 나로 나가기

공 안내

금이야 사랑해

극단 창작무대 우림과 여성문화예술기획이 공동제작한 '금이야 사랑해'가 오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학로 소극장 오늘한강마녀에서 열린다. 10년 전 동두천에서 미군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던 윤금이(당시 26살)씨 이야기로 분단 현실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한미군과 이땅의 여성 문제를 무대로 끌어올린다. 윤씨가 죽임을 당한 뒤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주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간: 3월 6일~4월29일까지
(화~금) 저녁 7시 30분·
(토)오후 4시 30분, 7시 30분·
(일)오후 4시
장소: 대학로 소극장 오늘한강마녀
문의: 02)762-0810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⑩ 체코어과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볼만한 영화

콜리야

사랑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뜻하지 않게 법적 아들이 생긴 바람둥이 루카와 그의 아들 콜리야.

처음에 루카에게는 콜리야의 존재가 체코에 들어와 잘대 돌아 가려하지 않는 소련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랑을 믿지않는 루카에게 콜리야는 사람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어두웠던 프라하의 봄, 공산주의의 몰락과 새로운 체제의 등장으로 체코사회는 매우 어지럽다. 감독 잔스베락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모습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때로는 코믹하게 그려낸다. 이 영화는 1997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골든 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 당시 체코의 상황을 알고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이 영화는 우리 나라에 소개될 몇 안 되는 체코 영화 중 하나다.

읽을거리

밀란쿤데라/
민음사/7500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봤음직한 이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의 작가 밀란 쿤데라는 체코사회에 대한 배반의식을 그 당시 회생자인 지식인을 통해 비판한다. 그는 당시 지식인의 상황을 의사에서 창문 닦이가 된 토마스를 통해 생생히 그려낸다. 또한 이 책은 일시성과 영원함 등의 대립구조 속에서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름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라고 말하는 밀란쿤데라는 이후에도 느린, 향수 등을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다. 한편 이는 국내에도 소개된 영화 '프라하의 봄'의 원작이기도 하다.

음악거리

스메타나

음악의 도시라 불리는 프라하. 그 중심에 있는 '프라하의 봄'(음악 축제)이 스메타나의 서거일에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체코인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인 그는 19세에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스메타나는 1848년 프라하 음악원을 졸업하였고, 그가 세운 음악원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체코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의 민족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체코의 대표적 국민악파 음악가인 그는 창조적인 예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비평가 그리고 문화계 지도자였다. 그는 국민들의 잠재적인 지성과 도덕적 힘을 일깨운 사람이다. 열렬한 애국자이자 음악가로서 그는 '나의 조국'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프라하 박물관 근처 스메타나 박물관을 관람객에게 연주 영상, 관람료는 좀 저렴하다.

사이트

http://czech.new21.org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체코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우리학교 체코어과 91학번 이시환군의 체코소개 홈페이지 '이시환의 프라하성(czech.news21.org)'에 가보자

그곳에는 체코의 개황,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코어 등의 체코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또한 Q&A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유학 등의 체코에 관한 질문을 남겨 놓으면 성실하고 꼼꼼한 답을 들을 수도 있다.

특히 역사코너를 보면 원시 사회부터 현대까지의 체코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체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기본적인 체코어 회화와 문법도 정리되어 있고 지리의 기후 등이 정리되어 있어 체코를 여행하거나 혹은 체코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담

체코 여행을 한 이시숙(체코어과 조교)씨를 만나

"마치 동화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라고 전하는 이시숙(일반대학원·동유럽어문학과 3학기)양은 언어 연수차 1996년부터 일년간 체코 까릴대학에서 공부했다.

유럽배낭 여행객들이 '파리' 다음에 가고 싶은 곳으로 뽑는다는 프라하에 대한 인상을 그녀는 "마치 장난감 도시"같다고 전한다. "체코는 다른 동구권과는 달리 2차대전의 피해가 없어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고 전하는 그녀는 그래서 체코 건축물이 표본물로 불린다는 것이라며 덧붙인다.

그녀는 지렁한 물가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관광객을 여러번 다시 체코를 찾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를 여행하려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야해요. 체코에서는 영어로 여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주로 영어보다는 독일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라고 그녀는 전한다.

"보헤미안의 나라 체코답게 거리의 연주자들의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보면서 체코의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또 까릴교 밑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여유로움이 가끔 그립기도 해요"라며 그녀는 체코에서의 여유롭고 자유로웠던 생활들을 이야기했다.

체코의 지방도시 체스키끄룸로프와 텔츠 등은 유네스코 지정도시로 그녀는 이곳들을 여행하며 더욱 체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체코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프라하뿐만아니라 지방도시들도 꼭 여행하기를 권했다.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프라하의 봄에는 체코전체가 들떠 있어요. 한달 쯤 계속되는 이 축제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예요"라며 그녀는 프라하 성에서 열린 음악축제를 떠올리며 행복해했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수기 -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농성단의 하루일과

"배고픔과 추위는 우리를 막지 못해"

*이글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12일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서총련(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단식농성단 활동을 했던 한 학생의 글입니다.

"큰일났어 항수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결국 한 사람이 쓰러졌다.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0일째 일이다.

명동성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겁다. 날씨마저 어둡다. 오늘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지하철 계단은 왜 이리 많은지 새삼 내 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나 마저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종착지는 명동성당 들머리. 이 곳엔 네 개의 감옥이 있다. 모형으로 제작한 감옥 3개와 보이지 않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감옥 하나다. 푸른 색 수의를 입고 3명의 정치수배자와 17명의 단식농성단이 이 감옥 속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명동성당으로 모두 돌아왔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다들 지쳐있는 모습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쯤 잠들때까지 쉬지않고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소리높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활동해 온 날수 가 두자리수를 넘어섰다.

무기한 단식농성! 언제 끝이 날지 기약없다. 도대체 몇명이 쓰러져야 우리민족을 50여년간 옭아맨 저주로운 국가보안법이 끝장날지.

"힘 내자. 국가보안법이 이길지 우리가 이길지 한번 해보는 거야" 누군가 말한다.

'힘내야지, 난 지금 단단하게 있어야 해. 배고픔과 추위정도는 우리를 막지 못해'라 생각하며 자신을 붙잡는다. 우리를 바라보는 정의롭고 애국적인 40만 서울지역 대학생들과 1천만 서울시민들의 눈을 생각하자.

지난 10일간 단식농성을 하는 사람들치곤 많은 일을 했다. 보통 단식농성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 한 채로 진행한다.

몸도 되도록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일 이상을 넘기지 못해 쓰러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명동성당 들머리에만 있을 수 없었다. 우선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명동성당은 우리 농성을 허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쉬고 잠자야 할 공간인 천막조차 치지 못하게 하였다.

고심 끝에 명동성당 가까이에 있는 한린교회에 남는 방 하나를 빌려서 잠만은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바깥에 있다보니 추위를 견디기는 힘들었다. 두 번째로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은 그럴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집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개정에 반대했다. 믿을 것은 국민뿐 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하는 것만이 능사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이것이 큰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명동성당에만 있지 말고 국민들 속으로 투쟁하는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온 몸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호소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움직였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한나라당으로, 국회로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전진했다. 명동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선전전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했다. 또 각 대학 총학생회를 찾아다니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을 모아주기를 호소했다.

이제는 퍼포먼스를 할 시간이다. 농성단원 모두 푸른색 수의로 갈아입는다. 퍼포먼스는 농성단원들이 푸른 수의를 입고 모두 일렬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명동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말한다. 농성 들어온 첫날부터 매일 오후에 진행했던 선전활동이다. 난 퍼포먼스 시간이 제일 힘들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때로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다양하게 들어선 음식점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나를 다시금 시험에 들게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육구를 참는 것은 힘들다.

내가 대열의 제일 앞에 묶였다. 목에는 '어머니 보고싶어요'라 씌워진 칼을 썼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다. 하지만 난 농성이 끝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수배자들과 양심수들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 심지어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구속을 각오하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려오는 정치수배자를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연행해가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민주·반민중에다가 '반인륜(反人倫)' 악법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퍼포먼스도 끝나고 나니 비가 온다. 봄을 알리는 비인지, 비를 피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 애국외대 깃발이 휘날리며 외대친구들 30여명이 오고 있다.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에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감회가 새로웠다.

매일 추위와 배고픔과 활동의 피로 속에서도 나 홀로가 아닌 우리가 농성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새롭게 힘을 받곤 하던 나에게 학교친구들의 방문은 몸과 마음이 점점더 지쳐만 가던 나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힘이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혼히들 청년은 푸르기에 사회의 때가 덜 묻고 무엇이 옳은지 분가름할 줄 알며 정의를 본성으로 하기에 불의와 타협치 않고 실천으로 옳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분단이라는 모순은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삶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나를 얽매이던 분단이라는 놈을 지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이 사회는 양심이 살아있을 수 없고 분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청년으로서 이 사회의 건강한 뿌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시키고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세상 통일조국을 위해 남은 농성기간을 힘껏 지켜내자!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잠자리라는 기본적인 욕구의 중단에도 행복해 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이다.

단식농성이 비록 힘은 들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신념과 일치된 행동이자 옆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서양·영어 97〉

졸업생이 새내기에게

졸업을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 동안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다 문득 교문 앞의 '신입생 입학식' 두 글자를 보니, 끝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으로 외대교정은 벌써 봄이 온 듯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진짜로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새내기. 지긋지긋한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새내기, 모두들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다들 들떠 있겠지요.

'대학' 이라는 곳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강요되어온 삶이었지만, 대학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보통 청년들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새것에 민감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유신독재시절에도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민주화를 외쳤지요.) 저 또한 선입견을 버리고 선배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면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의 소중함도 느꼈고 '우리'라는 의미도 알게되었습니다. 동아리는 말 그대로 개인 개인이 함께 모인 것이고, '나'라는 개인이 빛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또한 전 문예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모두 함께 땀 흘리며 준비한 공연은 뿌듯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은 경험을 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저의 성격도 많이 활발하게 바뀌었고 또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으며 가치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혼자 공부만 하던 사람보다는 성적은 그보다 조금 떨어져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한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지요?) 아마 제가 대학생활에서 배운 것들은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의 큰 잣대가 될 것입니다.

새내기들도 앞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겠지요. 뒤늦게 주어진 삶의 백지가 얄밉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이라는 곳에서 알찬 내용으로 백지에 밑바탕을 그려나갔으면 하는 선배의 바램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면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죠? ^^;) 그러다보면 언젠가 자신이 진짜 하고싶은 것이 무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될 거에요.

새/내/기/파/이/팅 !!!

함혜민 95〈동양·일본어 졸업〉

사

수집

"처마 아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잠든 아들 녀석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는 차현호(33)씨.

지난 17일 정리해고된 그는 치솟는 억울함과 막막함을 뒤로 한 채 오랜만에 아들과 공치기를 했습니다.

가뿐 숨을 몰아쉬는 아들놈을 안으며 내일 싸울 힘을 다시 충전합니다.

- 지난 3월 2일 대우차 정리해고 노동자 단합대회에서 -

아름다운 나침반

철새들이 수천 마일을 남북으로 이동할 때,
그들은 정확히 경도를 따라 난다고 한다.
그들이 경도를 따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뇌 속에, 북극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나침반 모양의 광물성 분자가 있기 때문이다.
광물성분자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나침반인 셈이다.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01학번 새내기
원서접수 : 3월 20일(화)까지
문 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기자실
서울)961-4152
용인)3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추가등록기간안내

2001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2001년 3월 12일(월) - 2001년 3월 19일(월)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하나은행 본점 및 지점 (학자금 융자추천 학생에 한함)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외부 장학생은 학생처에서 장학증서를 수령 후 고지서와 함께 납부 할 것.**
   (교내 또는 외부장학생의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은행에서 수납절차를 밟아야 함)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6. **9회 이상 등록대상자 확비갑면**
   가. 수강신청시 10학점 이내로 신청한자. (11학점 이상은 재학생과 동일함.)
   나. 학생서비스센터에서 고지서를 개별발급 받음.
   다. 학적과에서 9회 이상 등록확인을 받은 후 경리과에서 금액을 정정받는다.
   라. 수납장소 : 제일은행 외대지점(서울), 제일은행 외대출장소(용인)에서만 가능함.
7. **분할등록**
   가. 분할등록예치금 : 120만원 이상(장학금수혜자는 장학금을 차감한 잔액의 1/2이상)
   나. 예치금 납부기간 : 2001. 3. 12(월) - 3. 19(월)까지
   다. 잔액납부기한 : 2001.4 23(월)까지
   라. 수납장소 : 제일은행 외대지점(서울), 제일은행 외대출장소(용인)에서만 가능함.
   마. 제출서류 : 분할등록 납부신청서, 학부모 인감증명서 각 1통.
8. **인터넷 수납** : 2000-2학기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ID를 발급받아야 함.
   가. 국민은행 : http://www.kookmin.co.kr
   나. 제일은행 : http://www.kfb.co.kr
   다.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kr

2001. 3. 1.

재 무 처 장